

1·11 부동산 제도 개편 Q&A

민간아파트 분양가 20% 인하 효과

정부는 11일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열린우리당과 합의한 직후 이와 관련된 질의 응답 자료를 배포했다.

▲분양원가 공개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간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 용적률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공공택지에서 25% 내외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되며 이번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채권상환액 하향조정 등을 통해 민간택지에서 20% 내외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5개 항목으로 공개한다.

“분양원가 공개해도 주택공급 차질 없다” 담보대출 1건으로 줄여 대출증가세 차단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의 실질적 인하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분양원가 공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논란이 많은 택지비, 가산비 내역이 상세하게 검증·공개됨으로써 부분별 분양가 부풀리기는 차단될 수 있을 것이다.

방안을 실질적인 원가공개로 볼 수 있는지는? ▲택지비는 민간택지의 특성상 정확한 산정이 곤란하므로 공인기관이 평가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검증·공개하고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지목돼 왔던 가산비의 상세내역을 사업장별로 철저히 검증·공개하게 된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잠자는 보험금 작년 5천억원

휴면 보험금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 가입자가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2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은 휴면 보험금이 작년 9월말 현재 1천566만건에 5천2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가복지 서비스차량 420대 전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1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경마공원에서 재가복지서비스차량 420대를 전국 복지기관에 전달하는 행사를 열면서 차량으로 '나누면 행복'이라는 글씨를 연출하고 있다.

한은 총재 “집값 안심할 수준 아니다”

콜금리 4.5% 동결.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면서 “(부동산 가격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통화정책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점”이라며 “아파트값 부담이 현재 안심해도 될 상황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융기관의 여신 증가 속도가 여전히 빨랐으며 감속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민원처리 만족도 매우 낮다”

현대리서치研 만족도 조사.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점, 서류 민원의 만족도는 55.7점이었다. 민원 종류별 만족도를 보면 질의·건의는 61.5점, 이의 신청은 52.7점, 진정은 56.4점이었다.

연초 과일·배추값 하락세

선물 수요 급감... 사과 한상자 1주일새 1,400원 내리. 연말연시 선물용 수요가 줄면서 과일 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배추값도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kg) 가격이 저장감귤이 출하되면서 2천 원 내리 1만6천900원에 팔렸으며 단감(1kg)은 지난주와 같은 3천500원을 기록했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Company Name, Position, Salary, and Contact Info. Includes various job openings from Recruiting Gwangju Network.



자녀에게 '고기잡는 법' 가르쳐라

조기 금융교육 삶을 바꾼다

‘닭은 고기를 주기 보다는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 무드의 교훈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부모들은 돈이 필요하다는 자녀에게 무작정 지원만 해주려 한다.

소득과 지출 등 경제흐름 알게해야 부모, 계획성있는 소비행태 보여주길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마저 불투명하다는 것을 모른 채 말이다. 국민은행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과 비교할 때 저축하는 방법(미국 85%, 한국 76%)과 현명하게 돈 쓰는 방법(미국 89%, 한국 96%) 등 기초적인 금융교육 항목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어렸을 때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받아 본 부모가 드물기 때문이며, 부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도 보행자 통로 생긴다

올해부터 읍·면·동 설치. 올해부터 읍·면·동 등 시가지지를 통과하는 국도에 보행자 전용 통로가 생겨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포함된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국도가 시가지지를 통과하고 이 도로가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을 위한 보행도로로 동시에 이용될 경우 발주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해 국도에 보행자 전용 통로를 설치하는 내용 등

고급아파트·주상복합 전기요금 대폭 오른다

3자녀 이상 가구·빈곤층은 감면. 공동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고급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기 사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최고 400%의 할증료가 부과되면서 전기요금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사용량에는 주택용 저압요금, 공동 사용량에는 일반용 저압요금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산자부는 이중 대부분의 고급 아파트 및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 전체 아파트 단지의 60% 가량이 채택하고 있는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동 사용량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에 대해 공동 사용량이 세대당 월 100kWh를 초과할 경우 사용량에 따라 100~400%의 할증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for 'Yamaha Infratec 460' driver, featuring an image of the club and promotional text about its performance and features.